

미국소설
제24권 2호

ISSN : 1738-5784(Print)

입양서사와 샌프란시스코 :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새로운 지형

오승아

To cite this article : 오승아 (2017) 입양서사와 샌프란시스코 :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새로운 지형, 미국소설, 24:2, 75-108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입양서사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새로운 지형

오 승 아

I. 입양서사와 아시아계 미국소설 내부의 변화

1949년 아시아계 미국 혼혈아동들의 미국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작가 펄 벅 (Pearl Buck)의 국제입양재단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의 창설 이래, 아시아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국제입양(transnational adoption)의 서사는 다방면에 걸친 미국의 국내외상황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획득해왔다. 아시아로부터의 국제입양이 “미국의 풍경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 외에(McKee 119), 오늘날 국제입양은 “20세기 후반 가장 특권적인 형태의 디아스포라로 인식”된다는 데이비드 앵(David Eng)의 지적 또한 흥미롭다(Feeling 94). 국제입양의 역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954년 이래 “16만여 명 이상 아동들 특유의 한국계 민족 디아스포라”를 탄생시킨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이라면(HübINETTE 129), 한국계 미국 국제입양서사의 일부는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의 『피의 언어』(Language of Blood), 사만사 푸터맨(Samantha Futerman)의 <트윈스터즈>(Twinsters) 등 문학 및 영상 텍스트로 탄생하여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도 했다. 이와 같은 현재진행의 흐름을 비롯, 오늘날 아시아로부터의 입양 이동(adoption migration)은 한미 관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에서도 입양의 소재는 입양인, 입양부모, 관찰자를 교차시키는 다채로운 관계의 설정 속에서 다각적인 접근과 시점으로 조명되어왔다. 바라티 무커지(Bharati Mukherjee)의 『자스민』(*Jasmine*)에서 인도 출신 여주인공은 미국에서 처음 접한 입양모의 모습을 “이국적”(foreign)인 미국 특유의 모성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훗날 베트남 소년의 입양모가 되는 경험은 그녀의 미국적 정체성 정립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151). 유사한 맥락에서 루스 오제키(Ruth L. Ozeki)의 『나의 고기 해』(*My Year of Meats*)는 텔레비전에서 접한 백인 미국가정과 국제 입양의 화목한 이미지에 설득당한 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일본인 주부 아키코(Akiko)의 경험을 주목한다. 반면 기쉬 젠(Gish Jen)의 『러브 와이프』(*Love Wife*)는 중국계 미국인의 아내이자 중국으로부터 입양한 딸들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공정성과 급진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산층 백인 여성 블론디(Blondie)를 주요인물로 설정한다. 작품은 3세대에 걸친 세 차례의 국제입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아시아,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구도에서 중첩되고 반전되는 관계의 역학을 흥미롭게 제시하며, 이민, 입양, 인종, 혈연, 정치성의 주제와 함께 오늘날 미국에서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와 정체성,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아시아계 미국문학, 입양, 가족, 정체성의 주제를 논할 때, 일본계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국계 미국인 입양부와 한국계 흑인 혼혈 입양인 딸로 구성된 독특한 입양 가족의 정경을 그린 창래 리(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프』(*Gesture Life*)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다층적으로 변주되어온 입양 서사의 흐름의 중심에는 『피의 언어』로 대표되는 입양인 자전서사와 이를 모방한 형태인 마리 명옥 리(Marie Myung-Ok Lee)의 『누군가의 딸』(*Somebody's Daughter*)을 비롯한 국제입양 소설들이 존재한다. 입양인의 정체성 갈등을 중심으로 개인, 가족, 국가의 관계를 탐색하는 다양한 학문적 성과에 힘입어 국제입

양은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내에서도 괄목할만한 하위분야”로 부상한 바 있다(Schlund-Vials and Wu 201).

최근 주목되기 시작하는 것은 기존 작품들의 문제의식과는 차별되는 관점으로 입양 소재에 접근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계 미국작가 성우(Sung J. Woo)의 『러브 러브』(*Love Love*, 2015)와 베트남계 미국작가 비크민 응구엔(Bich Minh Nguyen)의 『파이오니어 걸』(*Pioneer Girl*, 2014)은 입양을 작품의 중요한 플롯 장치이자 소재로 활용하지만, 이들의 관점은 아시아계 영유아의 미국 백인 중산층 가정 편입과 그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의미에 집중해온 기존 서사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이는 각각의 서사가 기반을 둔 새로운 지형의 제시로 이어진다. 『러브 러브』의 양대 플롯 중 하나는 입양모의 죽음 이후에야 자신이 입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세대 한국계 미국인 케빈(Kevin)이 미지의 친부모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파이오니어 걸』은 현대 미국 대중문화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초원의 집』(*Little House on the Prairie*)의 숨은 저자 로즈 와일더 레인(Rose Wilder Lane)의 입양 수수께끼를 좇는 베트남계 미국인 연구자 리(Lee)의 여정을 따른다. 두 작품에서 모두 국제입양의 구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그려내는 입양서사의 지도에서 아시아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국제입양의 이동경로는 미국 내를 오가는 동선으로 대체된다. 서구를 “홈(home)으로 알고 자라난 입양인이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안고 아시아를 방문,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얻은 채” 다시 서구의 “홈”으로 돌아간다는 국제입양서사의 “3부작 구조”(Sorenson 165)는 각각 미국의 동부와 중서부에서 북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하는 여정의 구조로 치환된다.

본 논문은 새로운 입양서사들이 태평양 건너 이국적 아시아가 아니라 미 서해안의 끝자락 샌프란시스코를 근원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중요시한다. 일찍이 데이비드 앵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현재를 “(아시아로부터의) 출발과 (미국에의) 도착 사이에서 유예된” 것으로 진단, “집/국가(home)를 주장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 채 상실의 향수 혹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내몰

려 있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을 역설했다(*Racial* 204).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상황은 국제입양서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양인이 궁극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민족적 정체성의 근원 아시아와 법적, 문화적 고향 미국 사이의 간극, 그리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과 소외의 고민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와 응구엔이 그려낸 입양서사와 이동의 경로는 더 이상 먼 그곳(“over there”) 아시아와 여기 이곳(“out here”) 미국 사이의 거리를 축으로 삼지 않으며, 정체성의 의문과 고민을 품은 채 떠나고 또 돌아오는 입양의 지도 위에 아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도 문화도 낫설지만은 않은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헤매는 아시아계 미국인 주인공들에게 디아스포라의 고민은 때로 포스트모던의 고민으로 대체되며, 이와 같은 공간적 시학 위에서 우와 응구엔의 소설은 더 이상 정체성 탐색을 목적으로 아시아를 돌아보지 않는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의 은유로 작동한다.¹⁾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에서 국제입양의 서사가 제기하기 시작한 정체성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문제시되는 과정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양인의 정체성 탐색에 대한 질문의 방향이 아시아를 향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구도가 비입양인 작가의 작품에서마져 허구적으로 반복 재생산되는 구조는 인종적 범주를 넘어서는 문화적, 경험적 정체성의 구성에 집중하며 더욱 활발해지는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의 정체성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걸으며 전직

1) 디아스포라의 고민이 떠나온 고향이라는 출발지와 정착해야 할 도착지 사이의 유예를 중심으로 하는 한편, 본문에서 논의되는 포스트모던의 고민은 낯선 대도시 공간에서의 소외, 혹은 문학, 역사, 텍스트를 통한 의미 탐색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디아스포라 주제연구가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한편, 포스트모던의 주요연구는 크게 백인남성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현대 미국소설 연구의 주된 경향이기도 하다. 『러브 러브』와 『파이오니어 걸』은 아시아와 미국을 양측으로 하는 디아스포라의 여정 대신 샌프란시스코 도시 공간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선과 새로운 경험의 서술을 제시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소설에서 상대적으로 간과 되어온 포스트모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아시아, 인종, 민족이라는 기존의 본질론적 주제어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새로운 움직임의 일환으로 읽는다. 미국 포스트모던 문학의 백인남성중심주의에 대해서는 Hogue 참조.

포르노 배우였던 생부로부터 자신이 잉태된 1970년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 듣는 『러브 러브』의 입양인 케빈의 모습은 출생의 근원을 좇는 한국 방문과 친모와의 상봉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계 미국 입양서사의 익숙한 플롯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적이다. 미 중부를 가로지르는 개척의 역사를 담아낸 백인 미국 텍스트 『초원의 집』과 저자의 개인적 기록을 추적하며 그 거대한 미국적, 문학적, 역사적 서사에 자신의 가족 서사를 엮어내고자 하는 『파이오니어 걸』의 리의 열망 또한 역사의 맥락 위에 입양의 은유를 작동시키는 동시에 역사기술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을 연상시키는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입양의 소재를 채택 및 활용해온 방식과는 단연 구별된다.

근원을 찾아 추적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접근이 필연성을 띠는 입양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와 응구엔은 아시아계 미국작가가 역사적 소재와 연결될 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자기 민속지학자, 혹은 자서전 작가와의 혼동”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Sohn 16). 이는 두 작품 모두 입양인이 아닌 작가들에 의한 비자전적 입양서사라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미국 동부와 중서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속에서 이 두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이 더 이상 일반 독자들을 위한 아시아계 “현지 정보제공자”(native informant)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맛닥뜨리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존재에 경이감을 느끼면서도 그들과의 연대 혹은 공통체적 운명을 상상하는 대신 낮은 도시공간을 걷는 소요자(逍遙者: flâneur)의 감성에 집중하는 케빈과 리의 샌프란시스코 체험은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와 이민사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공간이 지니는 상징성을 확장하는 시도이자 오랫동안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에게 암묵적으로 부인되어왔던 현대 미국문학의 “창조성과 예술가적 기교의 가능성”을 방증한다(Sohn 16).²⁾ 근원을 찾아 입양의 경로를 되밧

2) 현대 도시를 걸으며 관찰하고 사색하는 이방인으로서 소요자 개념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와 벤야민(Walter Benjamin)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도시, 현대,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도시 공간 속의 여행자로서 각 소설의 주인공들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자 개념을 사용하며, 백인중심 현대서구문학에서 애호되는 개념이 아시아계 미국문학 안에서 활용되고 발견되는 지점에 주목

는 여정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자가 상륙했을 것으로 가장 유력한 미국 서해안의 도시”(Wong 127)를 시작점이자 반환점으로 그려내는 그들의 새로운 지도는 과거와는 다른 열망과 요구를 담은 새로운 시선으로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새로운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입양서사는 아시아가 아닌 미국 땅을 근원으로 삼아 옹트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기 시작한다.

II. 『러브 러브』와 포스트모던 샌프란시스코

과거 미국의 이민사에서 뉴욕의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가 유럽계 이민자들을 위한 미국의 관문(entry point) 역할을 담당했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앤젤 아일랜드(Angel Island)는 그와는 “다른 해안선으로부터 온 이방인들’(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을 위한 이민소”가 위치한 곳이었다(Takaki xi). 샌프란시스코가 “한 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무수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꿈의 중심”에 자리했다는 로시오 데이비스(Rocío G. Davis)의 정리는 그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며(141), 도시는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차이나타운의 소재지로서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에서도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자랑해왔다. 1910년대 차이나타운에 남겨진 중국인 이민자들의 광둥어 시구들을 모은 『금산의 노래』(*Songs of Gold Mountain*)에 이어, 제이드 스노우 왕(Jade Snow Wong)의 자전적 서사 『다섯 번째 중국인 딸』(*Fifth Chinese Daughter*)을 필두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풍경은 프랭크 친(Frank Chin)의 『용띠 해』(*The Year of the Dragon*), 패 미엔 앵(Fae Myenne Ng)의 『뼈』(*Bone*) 등을 거쳐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며 다양한 찬상을 기록해온 바 있다.

반면 필리핀계 미국인 비엔베니도 산토스(Bienvenido N. Santos)의 『샌프란

시스코에 마음을 두고 오다니』(*What the Hell for You Left Your Heart at San Francisco*, 1987)는 그와 같은 흐름의 역방향에서 차이나타운의 그림자를 넘어선 샌프란시스코의 지정학적 의미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소설이다. 작품은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 이국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떠도는 주인공 데이비드 톨로사(David Tolosa)의 여정을 함께 하며, 입양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부를 찾기 위한 이들의 여정이자 혈연과 정체성, 공간의 중층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양서사에 기본적인 “탐색과 재회/귀환” 구조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Jerng 208).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필리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을 위한 잡지 창간 의뢰를 받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데, 출장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적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기 위한 그의 발걸음은 도시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에 대한 관찰과 탐색으로 이어지며, “내 아버지도 이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아직도 걷고 있을까?”(4)라는 의문과 환상은 “아래로 구부러지는 길목의 갑작스러운 모퉁이와 어두운 골목에 대한 경고도 없이, 꼬불거리며 돌아 위로 올라가며 이 도시의 거리를 걷는 우리 작은 갈색의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필리핀인들의 존재감으로 대체된다(191). 친부와와의 상봉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데이비드의 탐색은 샌프란시스코의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삶과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이지 국가적”이라는 중첩된 의미를 지니게 되며(Davis 144), 끝내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상실감은 개인을 넘어 미국 식민지로서의 역사를 지닌 필리핀과 필리핀계 미국의 상처로 기록된다. 자오정 주(Xiaojung Zhou)는 “유령”과 같은 존재감으로 산토스의 소설을 지배하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과거의 망령”이자 “미 제국주의의 개입과 필리핀의 신식민 지배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읽으며, 이를 “사회적 관계와 인종적 위치로 인해 구조적으로 생산된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망명 상황”에 대한 은유로 분석한다(193).

반면 30여년 후 발표된 우의 『러브 러브』가 제시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다채롭고 매혹적인 정경은 여행자로서 이 도시의 이방인인 동시에 내국인인 주인공

의 시점에서 그려짐으로써 낯선 공간과 익숙한 시선 사이의 거리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한다. “태어난 곳이지만 고향이 아닌” 샌프란시스코로 날아온 뉴저지 출신 입양인 케빈의 여정은 일견 데이비드의 샌프란시스코 체험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한 듯한 열개를 띤다.³⁾ 존재의 근원으로서 친부/모를 찾고자 낯선 도시를 찾아 “소요자-저널리스트처럼 샌프란시스코를 누비며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찰하는” 경험은 물론(Zhou 167), 그곳에서 만난 중년 백인여성과의 관계가 주인공의 여정 및 체험과 연결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두 작품 사이의 흥미로운 유사점이다. 특히 애초의 추적 대상이었던 친모 대신 뜻하지 않게 친부와 마주치는 케빈의 상황에 이르러, 아버지와의 만남이라는 모티프는 그의 여정을 데이비드의 체험에 더욱 근접시킨다. 그러나 “명백한 아시아인으로서”(2) 여권 없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늘 불안감을 느끼는 데이비드의 상황이 “국제화된 인종차별에서 싹튼 인종의 체제와 피해망상”을 예증하는 것과는 판이하게(Shiu 7), 발걸음을 옮기는 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명소와 거리명을 따라 도시의 풍경을 관조하고 역사를 상상하는 케빈의 모습은 오히려 “도시 소요자에게 특정한, 심지어 권능을 부여하는 익명성의 상황”의 예시로 적합하다(McNamara 13). 도시 곳곳에서 마주치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갈색 [피부색]이 데이비드의 시야를 지배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인종과 민족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역사의 상흔으로 이어지는 산토스의 소설과 달리(Shiu 26), 『러브 러브』에서 그려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에는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암시도 없다. 순간순간 이곳 서부와 떠난 동부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떠올리곤 하는 케빈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여타 미국의 도시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은 대도시의 인상으로 남는다.

바퀴달린 여행 가방을 끈 채 파벨 가(街) 초입에 선 케빈은 눈앞의 언덕과 그 너머 언덕을 가늠해보았다. 도대체 누가 제정신으로 이런 지형에 도시를 건설했을까? 하지만 이곳에 도시는 건설되었다. 주변의 건

3) “태어난 곳이지만 고향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로시오 데이비스의 『샌프란시스코에 마을을 두고 오다니』 비평에서 사용된 미국 태생 필리피노 묘사에서 빌려온 것이다(143).

물들 가운데 어떤 것도 맨하탄의 마천루처럼 높지는 않았지만, 여느 대도시가 그렇듯 가능한 모든 공간은 레스토랑과 상점과 갤러리, 그리고 물론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With his rolling suitcase in tow, Kevin stood at the foot of Powell Street and considered the hill ahead of him, and the hill above that one. Who in their right mind would build a city on terrain like this? But build it they did. None of the surrounding structures were as tall as the skyscrapers of Manhattan, but like any big city, every conceivable space was occupied by restaurants and stores and galleries and, of course, Starbucks. (115)

어린 시절 입양모의 샌프란시스코 출장에 동행했던 추억은 남아있지만, 금문교와 피셔맨즈 와프(Fisherman's Wharf) 식당, 알카트라즈(Alcatraz) 등의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기억은 여타 관광객들의 경로와 차이가 없다. 동부 출신 미국인 여행자로서 케빈이 바라보는 과거와 현재의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하는 제이드 스노우 윙, 프랭크 친, 패 미엔 영의 대표적 문학 작품은 물론 손 윙(Shawn Wong)의 『홈베이스』(*Homebase*), 카를로스 불로산(Carlos Bulosan)의 『미국은 내 마음 속에』(*America is in the Heart*) 등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라는 공간 위에 중첩되어온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의 역사성, 상징성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산토스의 소설 속 샌프란시스코에서 때로 방향감을 잃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없었다”고 되뇌는 데이비드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27), 호텔 로비에서 집어오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받은 지도에서 드러나는 낯선 도시의 지형이 케빈의 발걸음을 따라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은 현대의 소유자로서 그가 한 도시를 대면하고 익히며 실체화시키는 방식으로 부각된다. 그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민이나 역사를 담은 도시이기보다는 익명의 “코즈모폴리탄 도시”이다(118). 지극히 중립적인 그의 시선 속에서 도시 풍경은 “모퉁이에 있는 붉은 벽돌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서 만을 향해 캘리포니아 가를 따라 걸어간다면 거대한 기업건물

들과 최상류층 호텔을 지나쳐 가겠지만, 그랜트 가로 계속 걸어간다면 가로등마저 근육질의 용이 기둥뿌리까지 휘감은 모양의 고대 조명등으로 바뀐 동양(the Orient)으로 변환”하는 다채로움으로 묘사될 뿐이다(118). 이를 “이런 코즈모폴리턴 도시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으로 표현할 뿐 어떤 부가적인 감정도 떠올리지 않는 케빈의 인식 속에서 차이나타운을 마주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적 자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118). 중국어로 떠들썩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십대 중국계 소년들의 모습 또한 케빈에게는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군상의 일부일 뿐 결코 인종, 혹은 정체성, 소속감의 문제를 환기시키지 않는다.

케빈은 네 명의 십대 소년들 옆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스키 니트 모자, 검은 티셔츠, 찢어진 청바지 등 스케이터들의 필수복장으로 보이는 차림이었다. 각각의 뒤에는 스케이트 보드가 걸쳐져 있었고 그들은 젓가락으로 바빠 접시 위의 에그 롤을 가르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케빈은 알 수 없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소년들은 알렉사 또래로 보였고, 어쩌면 심지어 그녀의 타입일지도 몰랐다. 한때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니라던 네이트가 열렬한 스케이트 보더였다는 것이 떠올랐다.

[...] Kevin took a seat next to a foursome of teenage boys, dressed in what must be the de rigueur skater gear: ski knit caps, black T-shirts, torn jeans. A skateboard leaned behind each kid, and they were busily dissecting their plates of egg rolls with chopsticks. Kevin couldn't understand what the kids were saying because they were speaking Chinese, but it was plain they were having a great time together. These kids were about Alexa's age, and maybe even her type; he remembered at some point hearing that her not-boyfriend Nate was an avid skateboarder. (119)

이는 미국 내 필리핀인으로서 “[노년의 필리핀 노숙인들]보다 훨씬 젊기는 하지만 그들처럼 너털너털하고 길 잃은 듯 보이는 모습에 자신 또한 그들과 똑 같아 보일 것이라” 깨닫는 데이비드의 모습과는 선연한 대조를 이룬다(87). 타인의-미국의, 혹은 백인의-인종화하는 시선(racializing gaze)에서 자유롭지 못할 인종적 정체성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데이비드와 달리, 도시의 소요자로서 시선의 대상이 아니라 시선의 주체로 부상하는 케빈은 타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면화될 수도 있었을 인종화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아시아계 남성으로서 소년들에게서 주목하는 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대 거리 문화를 만끽하는 현대 도시청소년의 모습이며, 그들을 백인 소녀 알렉사의 남자친구 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케빈의 자연스러운 연상 작용은 더 이상 인종에 의해 관계의 가능성이 한정되지 않는 아시아계 미국의 새로운 인종의식과 감수성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백인 여성 앨리스(Alice)와 결혼했었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연상의 백인 화가 클라우디아(Claudia)와 대등한 남녀관계에 서는 케빈 자신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추후 드러나는 친부와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⁴⁾ 여행자 케빈의 샌프란시스코 체험은 이처럼 데이비드의 서사와 큰 열개를 함께 하면서도 과거의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문제시하던 역사, 인종, 민족, 소외의 주제와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방식으로 정체성과 경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표출한다.

민형 송(Min Hyoung Song)은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이 “이민이라는

4) 수잔 코시(Susan Koshy)는 프랭크 친(Frank Chin)과 폴 첸(Paul Chan)이 일찍이 미국대 중문화가 비백인 남성 가운데 유독 아시아계 미국남성들을 “남성성이 완전히 결여된 유일한 인종적 전형”으로 지적했음을 주목한다(77). 백인여성과의 관계설정엔 『샌프란시스코에 마음을 두고 오다니』의 데이비드와 케빈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산토스의 소설 속에서 낮은 백인여성의 집에 홀로 초대되었던 데이비드는 시종 어린아이 취급을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의 침실에까지 들어갔으면서도 어떤 성적 긴장감도 끌어내지 못한다. 반면 케빈의 경우 전혀 앨리스와의 결혼생활, 십대 소녀 알렉사와의 미묘한 관계를 비롯, 특히 클라우디아의 관계에서 성적 주체성과 적극성, 남성적 매력, 관계의 주도성 등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변화무쌍한 경험에 의해 강력하게 형성된 공통의 문학전통과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공통의 미래를 가지고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는 진단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개념과 범위가 끊임없이 교란되고 다양하게 재정의되는 현실을 지적한바 있다(“Asian” 14). 아시아계 미국문학 특유의 전통으로 간주되어온 “이민자의 삶, 그리고 세대를 막론한 도착, 투쟁, 적응, 순응, 저항에 대한 민족적 이야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아시아계 창작자들의 저항은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대면하는 내부적 변혁이자 세대 변화에 따른 현실의 반영이며(“Asian” 4), 이는 산토스와 우의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30여년의 세월의 의미를 예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의 소설은 “아시아계 미국작가의 작품이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캐릭터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을 담지 않는,” 그래서 “민족지학의 명령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탈인종주의(postracial)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으며(Chang 201-02), 특히 케빈의 입양부모와 그들의 친딸인 여동생 주디(Judy)의 존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저지에서의 일상은 오히려 전형적인 한국계 이민자 부모와 한국계 미국인 자녀의 갈등을 중심으로 낮익은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장면들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게 된 케빈이 친모의 존재를 찾아 40여 년 전 자신이 이동했을 경로를 되밟았을 때, 입양서사의 공식에 의해 출생과 근원의 분향으로 의미를 지녀야 할 샌프란시스코는 오히려 그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인종적, 민족적 전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포스트모던의 공간처럼 작동한다. 특히 도시의 언덕길을 오르던 케빈이 불현듯 그의 시야를 압도하는 그레이스 대성당을 맞닥트리는 장면은 미묘하게나마 흥미로운 방식으로 포스트모던 도시와 ‘양피지 도시’의 은유를 연상시킨다. 닉 벤틀리(Nick Bently)는 데이빗 하비(David Harvey)의 포스트모던 도시 개념을 빌려 와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겹쳐지는 이중의 도시”에 주목하는데(183), 대성당 앞에서 현재와 과거, 샌프란시스코와 유럽이라는 시공간의 중복을 경험하는 케빈의 모습은 바로 이를 구현해낸다.⁵⁾ 언덕을 포함한 대도

5) 벤틀리는 포스트모던 도시는 “필수적으로 파편적이며, 과거 형태의 ‘양피지’가 서로 겹쳐진, 현재 사용의 ‘콜라주’”라는 하비의 개념을 인용한다(183).

시 샌프란시스코의 복잡다단한 지형은 벤틀리가 논하는바 “도시의 전경을 읽어 낼 수 있는 이카루스와 같은 전망”과 “다양한 시점 사이를 이동하며 도시에 대한 감성적 재현을 창출할 수 있는 디달러스의 미로 속 보행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며(184), 이곳에서 케빈이 경험하는 것은 “관찰자-포스트모던 소유자의 정신 속에서 양피지처럼 겹쳐지는 역사와 서사로서의 도시” 혹은 겹쳐지는 역사와 서사로서의 그 자신의 모습이다(177).

죄책감 때문이었건 두려움 때문이었건 케빈은 그 다단의 계단 기슭에 설 때까지 회색빛의 우아하고 거대한 성당을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 전면에서 봤을 때 그레이스 대성당은 우뚝 솟은 탑들과 그 사이의 둥근 장밋빛 유리창으로 인해 노트르담 대성당을 닮았고, 동시에 그는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열 개의 동판으로 된 키 큰 앞문들 또한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는 신혼여행에서 이 두 구조물의 원형을 보았었다. 앨리스는 언제나 유럽에 가고 싶어 했었고 그건 두 사람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두 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금 통장을 털어낼 충분한 이유였다. 지금 그가 이 성당 앞에 서서,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리와 플로렌스의 일부를 바라보고 있자니 세상은 더욱 작고 친밀해졌고 그가 한 것이라곤 과거 그 두 곳의 장소에 그의 몸이 머물렀었다는 것뿐이었다.

Whether it was from guilt or fright, Kevin managed to miss the gray elegance of the enormous church until he was standing at the foot of its multiterred steps. From the front, Grace Cathedral resembled Notre Dame, with its rising towers and the round rose window in between, and he recognized the tall front doors, too, ten bronzed panels called the Gates of Paradise. He'd seen both of these original structures on his honeymoon. Alice had always wanted to go to Europe, and that was reason enough for them to empty their saving accounts to spend two weeks in France and Italy. As he stood in front of this church now, seeing a bit of Paris and Florence here in San Francisco made the world smaller, more intimate, and all he had done was be

physically present in both locations. (133)

시공간의 경계가 교란되고 융합되는 이와 같은 순간은 이후 케빈이 느닷없이 “그의 얼굴에 이십년을 더하는 요술 거울을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친부와 조우하는 첫 만남의 순간에 다시 한 번 인상적으로 반복된다(147). 지도의 도움을 받거나 거주자로부터 끊임없이 설명을 들을 때 더욱 선연한 그림으로 떠오르게 되는 샌프란시스코는 결코 그의 출생의 공간으로 신비화되지 않지만, 거울상을 통한 자신과의 대면으로 표현되는 친부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이 낯선 도시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입양 전 과거와 근원,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케빈의 현재에 덧입히고 겹쳐놓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시공간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케빈의 샌프란시스코 체험은 과거와 현재가 각각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입양서사의 틀 안에서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마크 C. 정(Mark C. Jerng)은 입양인의 정체성 인식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공간적 논리”에 주목, 입양이 통상 “입양인의 여정을 지도에 옮기는 공간적인 양식”으로 재현될 뿐 아니라 “부모, 사회복지사, 아이들, 자선기관 등”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계 또한 “근원과 도착지 사이의 이동으로 공간화”되는 양상을 논한 바 있다(207). 입양인의 체험과 서사가 미국과 아시아를 가르며 공간화되며 지도 위에 기록되는 여정은 아시아계 미국문학 안에서 다양하게 문학화 되어왔으며, 특히 입양인의 정체성 탐색이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엘리나 김(Eleena Kim)의 표현대로 태어난 땅 아시아를 “대량 성지순례”하는 여정으로 나타난다(Adopted 177). 그러나 입양인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출생지에 대해 부여되는 의미는 허구이거나 심지어 망상에 달할 정도로 종종 과장되었다”는 엘리 박 소렌슨(Eli Park Sorenson 168-69)의 문제의식이 제시하듯, 입양 담론의 탐색서사와 뿌리서사에 저항하는 움직임 또한 분명하다. 예컨대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는 “단일한 근원 혹은 어디로부터 왔느냐의 인식에 의해 입양인의 정체성이 서술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대표적 작품이다(Jerng 207). 입양인의 정체성이 출생지가 아니라 “이야기들, 역사들, 관계들”과 보다 밀착되어있음을 말하는 『제

스처 라이프』의 접근은 입양서사의 공간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Jerng 207) “포스트모더니스트, 비본질주의, 탈민족과 탈인종의 가치체계”에 확연히 부응하는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새로운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한다(Sorenson 169).

한편 케빈의 샌프란시스코 체험은 낯선 도시 공간과 존재의 인식을 둘러싼 포스트모던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되, 입양서사 특유의 공간적 플롯을 유지하면서도 출생지 및 근원 신화를 탈신비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의 입양이 아시아로부터 백인 중산층 핵가족으로의 국제입양이 아니라 한국계 이민자 가족으로의 국내입양(ICA: Inter-Country Adoption)이라는 점에서부터 케빈의 입양서사는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에서 예외적이자 반전의 지점에 위치한다. 선정적인 포즈로 사진 속에 남은 누드모델이 자신의 친모라는 유일한 단서를 안고 낯선 곳으로의 여정에 나서는 케빈의 모습은 자신의 뿌리와 친모를 찾고자 모국을 찾는 수많은 입양인들의 초상을 연상시키지만, 그의 목적지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 너머 존재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라는 사실은 독자가 막연하게나마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본질적’ 정체성의 의미를 상당부분 탈신비화한다. 빈센트 쉹(Vincent J. Cheng)의 지적대로 “죽보의 정통성(genealogical authenticity)이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의 척도가 된다는 집합적 믿음”이 입양인 뿐 아니라 “현대 미국의 기풍이자 시대정신”으로 작동한다 해도(65), “낯선 출생지에서 보낸 유아기의 몇 달을 근거로” 입양인의 정체성을 “선천적이고, 본질적이고, 정통적인 것으로 열렬히 분류하고 표시”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81). 출생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그 어떤 “선천적이고, 본질적이고, 정통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케빈의 상황이 입양 담론의 탐색서사와 출생지에 대한 신화화를 재고하게끔 하는 한편, 뉴저지의 양부 이씨(Mr. Lee)가 한국식 가치관에 익숙한 이민 1세대인데 반해 샌프란시스코의 친부가 노만 권(Norman Kwon)이라는 미국식 이름과 그에 걸맞은 문화적 유창성을 지닌 미국인이라는 점은 일반적 입양서사에서 아시아의 친부모와 미국의 양부모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전형성을 우스꽝스럽게 반전시킨다. 포르노 배우였던 노만의 과거를 알게 된 케빈이 “성에 대한 그의 욕구는 유전된 것이라 생각”한다는 뿌리서

사에 대한 농담 또한 아시아계 남성이 지닌 무성적 이미지의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175). 그러나 입양을 감행하는 모든 친부모들에게 공유될법한 “아기는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며 마치 그들의 아이인 것처럼 아무 편견 없이 자랄 것이다”라는 소망 그대로 자라난 케빈의 예외적인 행운이 오로지 한국계 친부모에게서 한국계 양부모로 입양된 그의 특수상황에 의해서만 가능했음은 국가적,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 결코 눈 감을 수 없는 입양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다(178).

마침내 케빈이 노만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한국계 국제입양인 드니즈(Denise)의 짧지만 인상적인 존재감은 입양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우의 문제의식이 지니는 복합성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나로서는 모르는 게 불가능했지만,”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면 좋겠다”는 드니즈의 말에 담긴 정체성의 고민은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을 뿐 아니라 백인 일색의 일리노이 작은 마을에서 자라남으로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부적절한 존재이고 내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에 익숙해져야 했던 그녀의 상황 속에서 더욱 확연하다(268-70). 소수자로서의 이와 같은 자의식이 입양서사를 비롯한 기존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익숙한 전반적 정서였다면, 자신이 지닌 ‘차이’에 무심할 수 있고 “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라는 인종적, 민족적 소외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케빈의 모습은 그의 예외적 입양의 조건 속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의 지평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이어진다(270). 노만으로부터 전해 듣는 과거의 서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인종적, 민족적 상황이 아닌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역사라는 점 또한 아시아계 미국의 경험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이 인종과 민족의 요소 뿐 아니라 미국 전반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는 것임에 특히 주목하게 한다. 이는 이어서 살펴볼 응구엔의 『파이오니어 걸』과 우의 『러브 러브』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지표이며, 아시아계 미국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입양의 소재와 은유가 제공하는 서사의 가능성은 인종과 민족이라는 본질성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여온

아시아계 미국의 잠정적 테두리를 교란시키고 재정의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III. 『초원의 집』, 전유, 『파이오니어 걸』

노만이 케빈에게 자신의 젊은 날을 소개하며 사용한 “1970년대였고, 샌프란시스코였고, 내가 이 동네의 유일한 히피는 아니었다”는 표현은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자유분방한 청년문화의 거대한 움직임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한 개인으로서 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169). 젊은 포르노 배우로서 케빈의 친모를 만났던 1971년을 회상하며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와 <녹색 문 뒤에서>(Behind the Green Door)등 동시대의 포르노 영화들을 거명, 그 시기가 “포르노의 황금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그의 모습은 현장에서 업계의 변화와 부침을 몸소 경험해온 해당산업과 시대의 살아있는 증인과도 같다(171). “옐로우 멜로우”(Yellow Mellow)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그 예명에 함축된 인종차별의 뉘앙스에도 개의치 않던 과거의 무지를 초연하게 말하는 태도 또한, 같은 시대, 같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마음을 두고 오다니』의 서사에 견주었을 때 1970년대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공통된 시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아시아계 남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 인종, 민족, 소외가 뒤섞인 현실을 경험하는 복합성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이방인으로 타국의 도시를 헤매고 있을 아버지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왔던 사십대의 필리핀인 데이비드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이십대의 청년으로서 노만의 시간이 교차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계 미국의 담론 안에서도 각기 다른 세대와 경험의 감수성에 기반을 둔 상충적 요소와 다양성을 지닌 공간으로 부각된다. 입양인의 근원으로서 출생지 아시아가 모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특히 친모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온 경향에 맞서, 서해안 끝자락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아버지의 영역으로 부각되는 우의 입양서사는 전통적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와 서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일련의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⁶⁾

응구엔의 소설 『파이오니어 걸』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남성성, 그리고 인종적 자의식의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조명하는 또 하나의 입양서사이다. 중서부의 ‘백색 풍경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자란’ 베트남계 미국인 2세대로서 주인공 리와 오빠 샘(Sam)에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적 소수자로서의 자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경이적 공간이다(84). “시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전혀 걱정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돌아다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는 리의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첫인상은 『러브 러브』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관찰자로 그려졌던 케빈의 체험을 연상시키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그녀에게 내면화된 인종화하는 시선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174). 그러나 특히 백인 일색의 중서부에서 아시아계 남성으로 살아온 경험에 대해 “아시아계 남자인 것과 아시아계 여자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잘라 말하며 “남자들은 달라. 여자들보다 더 못해. 특히 우리가 자란 곳에서는.”이라는 말로 탈성화(脫性化)된 이미지의 아시아계 남성의 소외를 단언하는 샘에게 샌프란시스코는 단연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한 새로운 정착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87-88). “샘 역시 이 도시 인구 사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의 하나가 되어” “나 같은 방문객들이 의욕에 넘치고 성공적이며 유능한, 아마도 행복하고 수월한 그들의 삶에 감탄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는 리의 상념 또한 거대한 미국의 지형 안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공간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지닐 수 있는 남다른 의미를 명확히 한다(199). 뉴저지와 미국 중서부라는 각기 다른 두 지역의 문화적, 인구 구성적 차이는 사십대의 케빈과 삼십대 초반의 샘, 리에게 있어 각기 다른 인종적 경험과 자의식으로 반영되지만, 각기 다른 그들의 여정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샌프란시스코는 그들 모두

6) 입양서사는 압도적으로 모녀의 만남을 중심소재로 하며, 친모와의 만남은 모국과의 상징적 화해로 표현된다. 엘리나 킴(Eleena Kim)은 한국아메리카학회 발표문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토비 도슨(Toby Dawson)과 생부의 상봉이 예외적인 부계서사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비슷한 경우로 국내영화 <마이 파더>를 들 수 있다.

에게 공히 익명성이 가능한 해방의 공간이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부각되며, 인종과 민족에 의해 한정되는 삶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에 기록되어온 샌프란시스코의 의미를 탈인종주의의 감수성과 새롭게 연결시킨다.

사우링 신시아 왕(Sau-ling Cynthia Wong)이 월터 알렌(Walter Allen)을 인용하여 정리했듯 “프론티어, 서부로의 이동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미국의 위대한 이미지로 남아있으며”(119), 이는 미국문학의 전통 안에서도 다양하게 변용되며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로 작동해왔다. 인종분리의 정책적 시행으로 인해 보편적 이동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아시아계 미국의 역사와 문학 속에서도 서쪽을 향한 이동과 그 열망은 면면히 존재감을 드러내왔고, 왕은 여주인공의 이동과 여정을 중심으로 하는 후알링 니 앵글(Hualing Nieh Engle)의 『뽕나무와 복숭아』(*Mulberry and Peach*)와 무커지의 『재스민』을 예로 들며 “서쪽으로의 이동 신화를 활용하기 위해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여주인공들을 동부에 위치”시켰음을 지적한다(127). 응구엔 또한 리의 입을 빌려 “이탈력체로 강조된 캘리포니아. 꿈과 그 모든 것. 왜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고 되뇌며 미국적 상상력과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서부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 의미를 논한다(240). 소설의 제목 『파이오니어 걸』이 서부로의 이동을 기본 골자로 하는 미국 개척의 역사를 강하게 환기하는 한편, 이 제목이 개척시대 이주의 역사를 담은 자전적 서사 『초원의 집』의 저자로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로라 잉갈스 와일더(Laura Ingalls Wilder)의 초고에 붙여졌던 제목과 동일하다는 점은 응구엔의 소설을 아시아계 미국문학을 넘어 지극히 미국적인 서사와 미국문학의 맥락 가운데 위치시킨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건 오직 샌프란시스코였다. 캘리포니아, 태양과 서부. 개척자들. 로즈. 그 많은 이주자들과 이민자들, 바다가 더 가까운 곳에 마음을 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여행자들의 약속의 땅. 그리고 생각했다. 샘.

But all I was thinking was: *San Francisco*. California, the sun and the West. Pioneers. Rose. The Promised Land of so many migrants and immigrants, all those travelers seeking a resolutions nearer to the sea. I thought: *Sam*. (159)

실로 리에게 샌프란시스코는 혈육 샘의 정착지이기에 앞서 미국의 개척과 진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주민들의 꿈으로 자리 잡은 도시이며, 그 여정의 서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은 그녀가 친근함을 담아 “로즈”라고 부르는 작가 로즈 와일더 레인이다. 와일더의 딸이자 『초원의 집』 연작의 숨은 저자로서, 중서부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으며 유럽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돌아본 작가 겸 저널리스트 레인은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난 베트남 전쟁난민의 딸이자 미국문학의 독자, 연구자로서 리가 매혹되고 동일시하는 인물인 동시에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 입양 수수께끼의 주인공이다.⁷⁾ 우연히 찾은 원고의 낙서와 무기명 편지에 근거, 젊은 날 레인이 비밀리에 낳은 친자를 샌프란시스코 모 가정에 입양시켰으리라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는 리의 열망은 훗날 레인이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일생에 걸쳐 여러 청년들을 상징적으로 입양하여 후원했고 그 중에는 베트남 청년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도 포함되어있으며 그 결과 자신도 레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226).

『눈부시게 행복한 시절』을 꺼내 알만조가 로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황금 핀을 선물하는 대목을 펼쳤다. 그 평평한 표면에 작은 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울타리 가로장을 따라 작은 호수가 있고 잔디와 나뭇잎들이 흩뿌려지듯 펼쳐져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묘사를 읽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궁금해 하는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정말로 엄마와 할아버지가 보관해온 그 핀일까?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눈치 채

7) 『초원의 집』 연작은 공식적으로 와일더의 작품으로 출판되고 있으나, 편집자로 참여한 딸 레인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는 첨예한 비평적 논쟁이 있어왔다. 현재로서는 레인이 연작의 실질적 저자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논의된다.

지 못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늘 그랬던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건 부름, 혹은 메시지일까? 이 건 같은 로즈였을까?

I slide out the copy of *These Happy Golden Years*, turning to that passage where Almanzo gives Laura a gold pin as a Christmas present. *On its flat surface was etched a little house, and before it along the bar a tiny lake, and a spray of grasses and leaves.*

I hadn't read or thought about the description in so long. Now a shiver went through me as I wondered what was real. Could it actually be the pin my mother and grandfather had kept? Was it a call, or maybe a message, staring straight at me as it had all these years, though I'd never before noticed? Was this the same Rose? (43)

관 만 하(Quan Manh Ha)는 『파이오니어 걸』의 특성을 ‘혼종성’(Hybridity)으로 규명, 소설이 『초원의 집』 연작과 와일더-레인의 가족사, TV 시리즈 <초원의 집>, 그리고 작가 응구엔의 상상력을 뒤섞은 서사임을 지적한다(61). 구체적으로 리의 서사를 지배하는 것은 『초원의 집』 연작에 내포된 가장 미국적인 개척자의 가족사와 그녀 자신의 베트남계 이민자 가족사를 연계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두 갈래의 역사를 교차하게 하는 것은 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작은 집 문양의 황금 핀과 그로부터 시작된 상상적 가설, 그리고 “입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다양한 기록과 기억의 파편들이다(226). 1965년 당시 청년이었던 리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이공의 카페를 자주 찾던 로즈라는 이름의 미국 저널리스트가 남기고간 작은 집 문양의 황금 핀과, 『초원의 집』 연작 가운데 『눈부시게 행복한 시절』에서 언급된 로라의 황금 핀을 동일한 것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은 로라의 외동딸로서 그 황금 핀을 물려받았을 노년의 “로즈”가 실제로 1965년 여성지 『우먼즈 데이』(*Woman's Day*)의 베트남 특파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다. 리의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은 로즈라는 여인과 이미 고인이 된 “로즈”가 동일인물인지의 여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쳐 자신의 손에 들어온 황금 핀을 “로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상상하

는 리의 갈망은 문학 연구자로서 그녀에게 익숙한 문헌 연구의 방식을 통해 본격적인 탐구 작업으로 발전한다.

공식적으로 첫 아이의 유산 후 어떤 가족도 남기지 않은 “로즈”의 생애는 왕성한 필력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그녀가 남긴 일기와 편지, 메모를 비롯한 다양한 사적 기록을 통해 추측 가능할 뿐이다. 이에 자신의 소장도서와 인터넷을 출처로 하는 술한 기록과 문헌 속에서 레인의 삶을 읽어나가던 리가 중서부의 도서관과 <초원의 집> 박물관을 거쳐 마침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며 레인의 입양 수수께끼를 추적하는 과정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입양과 정체성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예외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띤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입양의 중심에 위치하는 입양인, 친모와 양부모 중 그 누구도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닌 한편, 그 입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이지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정당성과 확신을 부여하고자 하는 절실한 소망은 아시아계 미국인 리의 것이다. “특정한 양식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을 정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라는 단일화 논쟁과 쟁점이 궁극적으로 “이질성, 혼종성, 다양성”의 양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현실이듯(Sohn, Lai, and Goellnicht 7), 인종에 근거해서라면 백인입양 서사로 구분되어야 마땅할 레인의 입양 수수께끼는 아시아계 미국인 리의 문제 의식과 관점에 의해 전유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에 새로운 서사로 자리잡는다.⁸⁾ 나아가 레인의 입양 여부를 둘러싼 리의 탐색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

8) 영미권 문학에서 인종,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소재를 채택하는 창작의 자유는 사실상 백인작가의 전유물이었으며, 이에 따른 소수민족, 소수인종 문화의 전유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백인중심 출판 권력에 의해 용인되어왔다. 반면 소수민족 작가의 경우는 반대로 자신이 속한 인종과 민족, 문화를 재현하고 문학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암묵적으로 강요받아왔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백인중심 미국의 개척서사 『초원의 집』 연작과 작가 레인의 문학적, 사적 역사를 중점적으로 추적하는 『파이오니어 걸』의 구성은 아시아계 미국문학 텍스트 안에 백인중심 미국문화와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담아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애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탈관습적이다. 작품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이 인종과 민족 뿐 아니라 통상 백인의 것으로 일반화되는 보편적 미국의 서사와도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의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이

한 희구와 직결되어있음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관계의 열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론 트랜(Sharon Tran)은 “소수민족 문학에서 흔히 그렇듯, 『파이오니어 걸』의 구조를 이루는 탐정 플롯은 (리의) 정체성과 소속감 탐색의 플롯으로도 작동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고전 안에 자신의 존재를 써 넣고자 하는, 또 와일더 가족으로 구현되는 미국과의 실제적 관계를 주장하고자 하는 리의 욕망”을 주목한 바 있다(116). 전쟁과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과거 및 역사와 단절되어버린 베트남계 미국인으로서 리의 상황은 마치 알지 못할 자신의 근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입양인의 목소리와도 같은 울림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 그녀의 갈망은 확신할 수 없는 머나먼 근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곳을 향하고 있다.

바로 여기, 가져갈 수라도 있을 듯 구비된 그의 가족사에 불현 듯 질투심이 일었지만 그레고리에게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다. 시선을 끝낸 아니든, 무시되든 아니든. 적어도 그건 그 자리에 있었다. 가능했다. 꿈꿈히 읽히고 보존될 수 있었다. 내 근원은 영원히 내게 흐릿할 것이었다. 언어의 장벽과 전쟁 사이에서 소실되고, 어떤 기록도 없는 할아버지의 기억 속 이야기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엄마가, 그리고 이제 내가, 로즈의 황금 편에 집착하는 건 당연했다.

I didn't admit to Gregory that I felt suddenly jealous, thinking about all the family history he had right here for the taking. To be looked at or not, ignored or not. It was, at least, there. Possible. It could be pored over and preserved. My own origins were forever vague to me, lost through language and war, maintainable only through Ong Hai's remembered stories that had no documentation. No wonder my mother,

구성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덧붙여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백인중심 미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시도가 백인중심 미국적 서사와 문화에의 동화가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인문학에 의한 소수민족, 소수인종 문화 전유를 반전시키는 전복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백인작가와 소수인종작가, 전유와 출판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Mikkelsen 참조.

and now I, held on to that gold pin. (213)

존재의 증명과 소속감의 확인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 리의 여정은 연속성 없는 문헌들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심증과 물증 사이를 떠돌고, 그녀의 추리와 탐색은 흥미롭게도 “문학적이건 역사적이건 간에 과거의 텍스트와 과거의 흔적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과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과 역사기술 메타픽션의 개념을 강하게 환기시킨다(Hutcheon 4). 소장도서들, 인터넷, 허버트 후버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로라 잉걸스 와일더-로즈 와일더 레인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도서관, 그리고 마침내 레인의 증손자로 추정되는 샌프란시스코 공립 도서관 사서 그레고리(Gregory)의 집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모험은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이 푸코를 인용하여 정리한 포스트모던의 정의, 곧 “자의식적으로 ‘아카이브(archive) 내부’의 예술이며 그 아카이브는 역사적이고 또 문학적이다”라는 서술과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6). 끝없이 이어지는 문헌 탐색의 과정을 통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과거와 역사의 진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고와 도서관에서 형성되어온 그녀 자신의 정체성이며, 대표적으로 도서관에 들어서며 “집”과 같다고 느끼는 리의 모습은 문학 연구자일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책들의 세계 속에서 미국을 가장 내밀하게 배우고 익힌 그녀의 문학적, 문화적 정체성을 표상한다(75).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인 리가 이디스 와튼(Edith Wharton) 소설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더러 와일더와 레인의 문학에 강렬하게 이끌리고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역사적 “유산”을 열망한다는 전개는 백인 중심 미국문학과 아시아계 미국인 독자와의 미묘한 관계를 중요하게 반영한 설정이다. 리의 가슴 속에 싹터온 “미국의 서사에 소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열망의 한계에 대한 인식,” 즉 “자부심과 분노의 역설”은 인종적 소수자로서 아시아계 미국인 독자들이 백인 중심 미국문학 앞에서 맞닥뜨리는 내적 갈등이자 또 다른 종류의 소외다(248). “소수민족문학” 전공을 권유하며 “왜 아시아인 여학생이 백인 미국문학 공부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가?”라는 암묵적 질문을 던지던 지도교수의 의문에 찬 시선은(35) “이 세상에서 독서는

더 이상 그냥 독서가 아니다”라는 리의 결론으로 이어지지만(227),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쏟아지는 인종화하는 시선 앞에 위축되는 대신 아시아계 미국인 독자와 백인 중심 미국문학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리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비백인 관련 연구를 하는 백인들은 잠재적으로 페티시즘이 있거나 문화적 전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 [...] 전유가 그 반대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227-28)고 되뇌는 리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 옛날 “로즈”가 살았던 샌프란시스코로 찾아든다. 미로와도 같은 낯선 도시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그려지는 것은 백인 중심 미국문학의 독자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리의 뇌리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념의 지도이다.

보도로 걸어 내려오며 나는 자신이 원하던 삶으로부터 돌아서되 감히 선택하지 못하던 뉴랜드 아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내 오랜 벗이 갑자기 재등장한 셈이었다. 현실에서 그들 모두는 일종의 상형문자 세계에 살고 있어서 진정한 것은 결코 말하거나 행해지거나 심지어 생각되지조차 않았고 다만 임의적인 신호에 의해 재현될 뿐이었다. 어찌된 셈인지 샘과 나 둘 다 서해안에 와 있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나 있을까?

Down at the sidewalk, I couldn't help thinking of Newland Archer — that old companion of mine, suddenly reappearing — turning away from the life he wanted but didn't dare to choose. *In reality they all lived in a kind of hieroglyphic world, where the real thing was never said or done or even thought, but only represented by a set of arbitrary signs.* Somehow, Sam and I had both found ourselves at the western coast. Did we even know what real thing we were trying to find? (200)

샘이 임시로 거하는 낯모를 저택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며 와튼의 『순수의

시대』와 자신의 삶을 생각하던 리는 곧이어 “필모어에 다다라 거의 백여 년 전 로즈가 살았던 러시아인 힐의 집을 향해 바예호 스트리트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한다(200). 그 길을 걸어 오르며 과거 로즈가 택했던 “아직 다리가 건설되지는 않았지만 태평양을 향해 열려있는 골든 게이트 수로를 전망으로 갖춘 언덕 꼭대기의 집”을 바라보는 리의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한 듯 떠도는 자신과 가족이 각각 만들어가고 또 서로에게 전하는 삶의 이야기들이다. “샘이 이 도시에서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갈지 알기란 불가능했다. 내가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할지 짐작하는 것도 불가능했다”(200). 아직도 불안정한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 “정말로 로즈의 집을 보고 싶었고, 스마트폰 지도에서 말하는 정확한 길을 찾아낼 만큼 그 집에 가까이 갔지만” 결국 지금 그 순간에는 “로즈에게도 또 하나의 임시거처에 불과했던 바예호 거리의 집”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리의 심경 속에서 그녀 자신의 떠돌이 가족사와 여행자 레인의 삶의 이야기는 어느새 하나로 뒤엉켜있다(201). 낯선 도시의 거리에서 멈추지 않는 리의 발걸음과 멈추지 않는 상념은 일면 캐서린 네시(Catherine Nesci)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에게서 읽어낸 “거리 걷기와 거리 집필을 뒤섞은 이동 창의성 형태의 여성 소요”(a female flânerie as a form of mobile creativity that blends street-rambling and street-writing)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일찍이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제기한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기억들과 이미지들, 도시의 미로 속에서 길 잃은 주민들의 초조한 자아에 관한 현대도시의 탐구”와도 이어진다(81).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베트남계 미국 가족, 미국문학, 리와 로즈, 역사와 현재의 편린들이 하나로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도보 여정은 “나는 답을 원했다”라는 결심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으로 이어지지만(201), “높이 떠오른 태양이 로즈의 고택 창문에서 눈부셨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서술이 대변하듯 그레고리와 함께 다시 찾은 로즈의 바예호 거리 1019번지는 결코 리에게 어떤 종류의 대답도 들려주지 않는다(206). 그러나 집 앞 계단에 올라 그레고리와 함께 한참 동안 로즈의 집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떠나는, “무심한

행인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역사와 수수께끼에 가득한 채 그곳에 존재하는 로즈의 오래된 주택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리의 모습은(208) 키이스 테스터(Keith Tester)가 정의한 바 “시선을 붙잡는 대상을 찾음으로써 그렇지 않고서는 불완전했을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그렇지 않고서는 불만족스러웠을 존재를 만족시키는” 소묘자의 모습을 다시금 연상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Tribunella 68). “그레고리가 나보다 더 앤젤 아일랜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는 리의 진술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의 역할은 결코 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를 백인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현지 정보제공자가 아니며 그녀의 길고 짧은 여정은 언제나 그녀 자신의 삶을 향한다(211). 로즈의 과거와 수수께끼를 좇아 점점 더 멀리 코르테 마테라(Corte Madera)의 근교 그레고리의 집을 찾은 그녀는 이미 눈에 익어버린 로즈의 필체로 작성된 또 하나의 기록, “파편들, 아주 작은 생각들, 조금 더 긴 문단의 모음”을 마주한다(229). 텍스트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는 탐색의 과정은 언제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 또 다른 실마리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로즈를 넘어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추구이다.

IV. 아시아계 미국소설의 새로운 지평/지형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에서의 세대변화를 주목한 비평서 『1965년의 아이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쓰기, 혹은 쓰지 않기』(*The Children of 1965: On Writing, and Not Writing, as an Asian American*)에서 민형 송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창작 표현이 관습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관습을 따르지 않을 때 더욱 흥미롭고 읽을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려한다”는 비평적 입장을 밝힌다(11). 우와 응구엔의 소설은 극단의 실험적 파격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입양서사의 영역 안에서 송의 선언에 부합하는 변화를 예시하는 일련의 작품들이다.⁹⁾ 복

9) 우의 전작 『아시아적인 모든 것』(*Everything Asian*, 2009)은 한국계 이민자 소년의 유머

합성과 다양성이 더욱 확연해져 가는 미국의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의 탈관습적, 반본질론적 변화는 아시아계 미국문학이 담아내온 인종과 민족 특유의 경험에 대한 도외시가 아니라 인종과 민족의 요소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과 정체성 확장의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인종과 민족에 한정되지 않는 “공통”의 요소에 대한 강조는 특유의 인종적, 민족적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수자의 “주변적 경험을 인식하게 하고,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토대”로도 작용한다는 지적은 중요하다(August 106). 덧붙여 변화하는 현실은 이와 같은 창작의 변화 뿐 아니라 비평적 태도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아시아계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의 비평이 어떤 작가와 작품에게 특권적 위치를 부여하도록 작동하는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문학 평단이 지녀야 할 중요한 책무임은 분명하다(Sohn, Lai, and Goellnicht 4).

아시아계 미국문학 내부에서 입양은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맥락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의 이질성, 혼종성, 다양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본질론적 접근에서 가장 자유롭기 어려운 개념의 하나로 문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와 응구엔의 소설은 이를 변화하는 아시아계 미국의 은유이자 상징으로 활용하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다양한 경험과 감수성을 규정하고 재현하며 상상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아시아계 미국의 지도 속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아시아로부터의 긴 여정 끝에 도달한 목적지 혹은 차이나타운의 소재지로만 존재하지는 않으며, 이 도시를 걷는 아시아계 미국인 주인공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더 이상 앤젤 아일랜드와 차이나타운, 이

러스한 성장담으로서 비교적 장르의 관습에 충실한 작품이지만, 작품의 구성과 주제에 영향을 끼친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Winesburg, Ohio*)에서 따 온 제시(題詞: epigraph)를 작품의 맨 끝에 배치하는 등 이미 미묘한 인종적, 형식적 탈관습의 면모를 암시한 바 있다. 응구엔은 전작 『부처님의 저녁식사 훔치기』(*Stealing Buddha's Dinner*, 2007)에서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에 한정되지 않는 “특정 세대 미국인에게 익숙한 대중문화 담론”을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August 106).

민의 역사만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치고 뉴저지로 돌아간 케빈은 다시금 서쪽 도시로의 여행을 전망하며 “기대감, 가능성, 미지의 미래”를 느낀다 (304). 중서부로 귀환한 후 필라델피아와 콜로라도를 이으며 방문 연구자로서의 길에 들어선 리 또한 작품의 마지막에서 다시금 “언제나 서쪽 너머에 존재하는, 꿈꾸어왔던 정경을 향한” 자신의 여정을 상기한다(293). 이들을 새로운 꿈과 서쪽으로의 여정으로 이끌어내는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이 아시아계 미국인 주인공들의 근원이자 전환점으로 존재하며, 미로처럼 낯선 대도시의 거리를 걸어가는 여정 동안 떠오르고 마주치는 다양한 상념들은 그들이 더 이상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본질론으로만은 풀이될 수 없는 아시아계 미국문학과 현대미국문학의 새로운 주인공들임을 읽어내게 한다.

(가천대)

인용문헌

- August, Timothy K. “The Contradictions in Culinary Collaboration: Vietnamese American Bodies in Top Chef and Stealing Buddah’s Dinner.” *MELUS* 37.3 (2012): 97-115.
- Bently, Nick. “Postmodern Citi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evin R. McNamara. New York: Cambridge UP, 2014. 175-87.
- Chang, Yoonmee. *Writing the Ghetto: Class, Authorship, and the Asian American Ethnic Enclave*. New Brunswick, NJ: Rutgers UP, 2010.
- Cheng, Vincent J. *Inauthentic: The Anxiety over Culture and Ident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P, 2004.
- Davis, Rocío G. “Bienvenido Santos’s *What The Hell for You Left Your Heart in San Francisco* and the Filipino Immigrant Dream.” *Revista de*

Estudios Norteamericanos 4 (1996): 139-45.

Eng, David L. *The Feeling of Kinship: Queer Liberalism and the Racialization of Intimacy*. Durham: Duke UP, 2010.

_____.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P, 2001.

Ha, Quan Manh. "Review: Nguyen, Bich Minh. *Pioneer Girl*." *Asian American Literature: Discourses and Pedagogies* 6 (2015): 60-62.

Hogue, W. Lawrence. *Postmodern American Literature and Its Other*. Chicago: U of Illinois P, 2009.

HübINETTE, Tobias. "Disembedded and Free-Floating Bodies Out of Place and Out of Control: Examining the Borderline Existence of Adopted Koreans." *Adoption & Culture: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the Alliance for the Study of Adoption and Culture* 1.1 (2007): 129-62.

Hutcheon, Linda. "Historiographic Metafiction: Parody and the Intertextuality of History." *Intertextuality and Contemporary American Fiction*. Ed. Patrick O'Donnell and Robert C. Davi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9. 3-32.

Jerng, Mark C. *Claiming Others: Transracial Adoption and National Belonging*.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10.

Kim, Eleana J.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P, 2010.

_____. "Beyond Motherlands and Mother Love: Figuring Korean Adoptees in Global Korea and Korean American Studies." *From Global to Glocal-The Future of American Studies: Proceedings of the Forty Third ASAK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4-25 October 2008*. Seoul: ASAK, 2008. 149-55.

Koshy, Susan. *Sexual Naturalization: Asian American and Miscegenation*.

Stanford: Stanford UP, 2004.

McKee, Kimberly D. "Rewriting History: Adoptee Documentaries as a Site of Truth-Telling" *The Routle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Media*. Ed. Lori Kido Lopez and Vincent Pham. New York: Routledge, 2017. 119-30.

McNamara, Kevin R. Introdu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evin R. McNamara. New York: Cambridge UP, 2014. 1-16.

Mikkelson, Nina. "Insiders, Outsiders, and the Question of Authenticity: Who Shall Write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African American Review* 32.1 (1998): 33-49.

Nesci, Catherine. "Memory, Desire, Lyric: The Flâneur" *The Cambri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Kevin R. McNamara. New York: Cambridge UP, 2014. 69-84.

Nguyen, Bich Minh. *Pioneer Girl*. New York: Penguin Books, 2014. Print.

Santos, Bienvenido N. *What The Hell for You Left Your Heart in San Francisco*.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1987.

Schlund-Vials, Cathy J., and Cynthia Wu. "Rethinking Embodiment and Hybridity: Mixed-Race, Adoptee, and Disabled Subjectiviti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Crystal Parikh and Daniel Y. Kim. New York: Cambridge UP, 2015. 197-211.

Shiu, Anthony Sze-Fai. "On Loss: Anticipating a Future for Asian American Studies." *MELUS* 31.1 (2006): 3-33.

Sohn, Stephen Hong. *Racial Asymmetries: Asian American Fictional Worlds*. New York: New York UP, 2014.

_____, Paul Lai, and Donald C. Goellnicht. "Theorizing Asian American Fiction." *MFS Modern Fiction Studies* 56.1 (2010): 1-18.

- Song, Min Hyoung. "Asian American Literature Within and Beyond the Immigrant Narrative" *The Cambridge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Ed. Crystal Parikh and Daniel Y. Kim. New York: Cambridge UP, 2015. 3-15.
- _____. *The Children of 1965: On Writing, and Not Writing, as an Asian American*. Durham and London: Duke UP, 2013.
- Sorenson, Eli Park.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1 (2014): 155-79.
- Takaki, Ronal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New York: Penguin Books, 1989.
- Tran, Sharon. "Pioneer Girl: A Novel. By Bich Minh Nguyen." *Amerasia Journal* 40.1 (2014): 116-18.
- Tribunella, Eric. L.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Child Flâneur." *Children's Literature* 38 (2010): 64-91.
- Wong, Sau-ling Cynthia. *Reading Asian American Literature: From Necessity to Extravag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93.
- Woo, Sung J. *Love Love*. Berkeley: Soft Skull Press, 2015. Print.
- Zhou, Xiaojing. *City of Others: Reimagining Urban Spaces in Asian American Literature*. Seattle: U of Washington P, 2014.

Abstract

Narratives of Adoption and San Francisco:
New Geography of the Asian American Novel

Seung Ah Oh

Recently, new Asian American novels are using the trope of adoption in unconventional ways. Sung J. Woo's *Love Love* and Bich Minh Nguyen's *Pioneer Girl* both employ the motif of adoption in their plot, yet unlike the representative Asian American literary works featuring adoption such as Gish Jen's *Love Wife*, Chang-Rae Lee's *Gesture Life*, and Jane Jeo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they portray cases of homoracial, inter-country adoption. Instead of visiting the country of origin in Asia with questions of biological relatives and reasons for adoption, both protagonists travel domestically to San Francisco in order to explore their identity. San Francisco becomes an intriguing city of origin for both Asian American protagonists who walk the city as flâneur figures with a postmodern sensibility.

Kevin Lee in *Love Love* observes San Francisco as a cosmopolitan city. Lee Lien in *Pioneer Girl* considers it a place of reinvention in the West. While the history of Kevin's Korean American birth father belongs to the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1970s San Francisco, and not to the ethnic histories of Asian America, the adoption mystery of Rose Wilder Lane beckons Lee Lien deeper into an American literary history. As San Francisco is marked as "origin" or "birthplace" on the map of Asian American itineraries, not as

destination of Asian migrations, narratives of adoption offered by these novels suggest the changing mode of Asian American literature that interrogates and problematizes the ways in which Asian American identity and experiences are defined, represented, and imagined.

- Key Words: Asian American Novels, Narratives of Adoption, San Francisco, Postmodern Sensibility, flâneur, Sung J. Woo, Bich Minh Nguyen, *Love Love*, *Pioneer Girl*

논문 투고 일자: 2017. 6. 30.

심사 완료 일자: 2017. 6. 30.

게재 확정 일자: 2017. 7. 10.